

SDI 정책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008. 6. 30 제15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서울경제
- II.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2008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요 약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경제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역시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 내수와 물가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5월 4.1%로 200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8년 하반기 체감경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는 고유가를 꼽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와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경기 체감도가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성장률은 2008년 하반기 2.3%로 상반기 3.1%(잠정치)보다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전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3.3%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제여건은 국가경제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소비는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0.3%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고유가로 인해 상반기 3.6%에서 하반기에는 5.2%까지 상승하여 서울경제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유가 충격에 취약하고, 따라서 전체 국가경제보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고유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대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진행되거나 계획된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사업 등을 조기에 시행하여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예산(1조 4,900억 원)은 서민경제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일리지 بانک 등과 같은 인센티브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 등 고유가와 빈곤층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I.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서울경제

하반기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세가 가속될 전망

- 6월 중 S&P의 모노라인(채권보증업체) 신용등급 하향으로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 지속과 대미 환율 상승으로 세계경제의 하강세가 지속될 전망

<표 1> 주요 경제변수별 지수 변화

| 주요 경제변수 | 지수 변화 |
|---------|--|
| 유가 | 6월 두바이유 127.48\$/bbl로 전년동월 대비 61.63% 증가 |
| 환율 | 5월 환율(매매기준) 1,036.73원/\$로 전년동월 대비 11.7% 상승 |
| 물가 | 5월 소비자물가 109.7로 전년동월 대비 4.9%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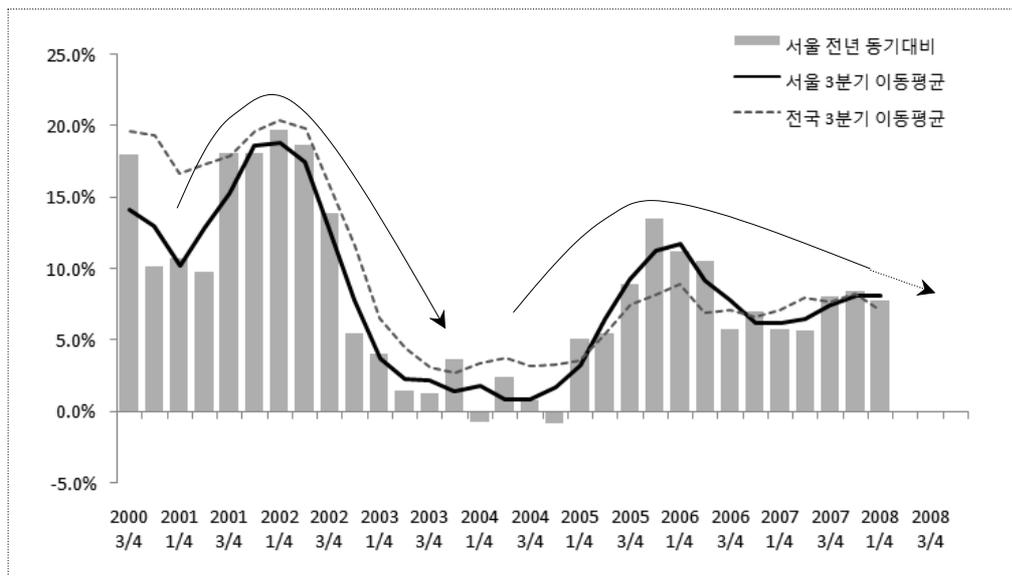
- 국내경제 역시 물가 불안 및 성장률 둔화 예상
 -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건 속에 국토개발균형사업 등 공공부문 주도의 기반공사가 확대될 것이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2/4분기 CSI(한은)는 2000년 4/4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급락

<표 2> 2008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여건

| | 긍정적 요인 | 부정적 요인 |
|-------|--|--|
| 국내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상승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개선 • 국토균형개발사업, 2기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부담 상승 및 고용여건 악화 • 한은의 유동성조절과 자금시장통합법(2009년)에 대비. 한 금융기관간 예금유치 경쟁으로 금리동결 |
| 국외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제의 국내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 등에 힘입은 지속적인 고성장 • 미국 Bear Stearns에 대한 FRB 구제금융 결정 이후 금융불안 다소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및 원자재가격 및 환율 급등 •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소비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증가 및 미국 경제 둔화 우려 |

2008년 1/4분기 이후 소비는 하락세

-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2007년 회복세를 나타낸 후 그 증가세가 둔화
 - 장기적으로 2002년부터 하락하던 소비 증가세는 2005년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나 최근 그 변동 폭이 줄어들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07년 하반기에 8.5%까지 다시 상승했으나 2008년 1/4분기 7.8%로 다소 하락하는 양상
- 서울의 소비 추세는 전국보다 1/4분기 정도 선형
 - 교차상관분석 결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국보다 1/4분기 앞선 상관관계(0.863)를 가지고 있어 서울의 소비가 1/4분기 정도 선형
 - 2005년 이후 서울의 소비가 전국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변동 폭이 다소 진정



[그림 1]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 추이

<표 3> 서울과 전국의 교차상관분석(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

(서울 기준)

| 시차 | 후행 | | | | 동행 | 선행 | | | |
|------|-------|-------|-------|-------|-------|-------|-------|-------|-------|
| | -1 | -3/4 | -2/4 | -1/4 | 0 | 1/4 | 2/4 | 3/4 | 1 |
| 상관계수 | 0.354 | 0.512 | 0.660 | 0.812 | 0.919 | 0.863 | 0.726 | 0.551 | 0.367 |

- 고유가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로 소비심리 냉각과 실질소득 감소, 서울의 경제 성장률 저하와 고용 개선의 지연이 주원인
 - 2008년 1/4분기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6% 상승하여 물가상승이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
 - 주식시장 불안과 실업률 증가세 상승 또한 소비 부진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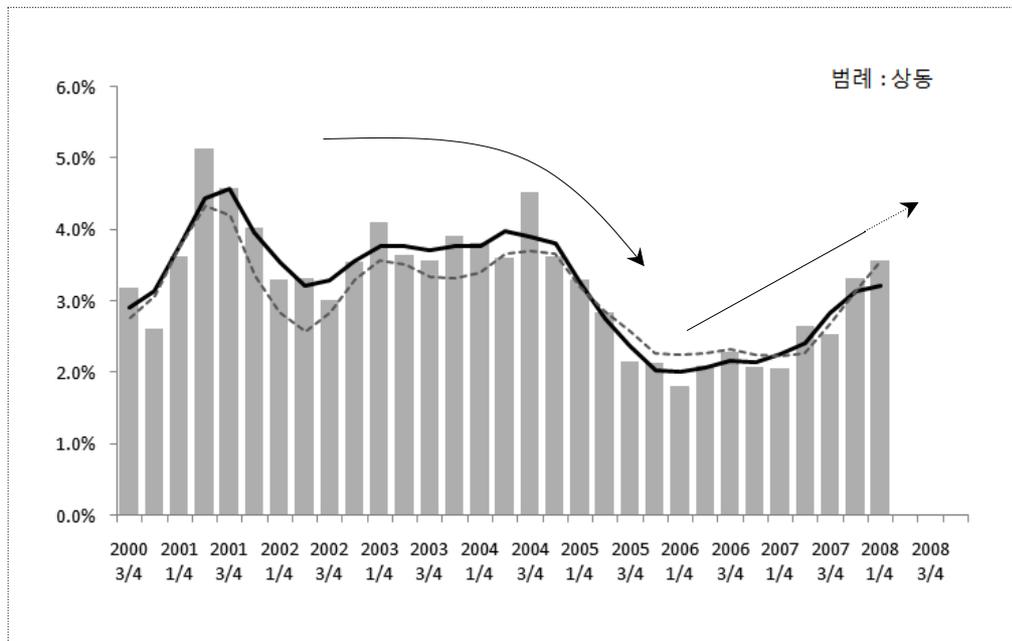
2007년 1/4분기 이후 물가는 가장 높은 수준

- 2005년까지 물가는 하향 안전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급등
 - 2006년 1/4분기 1.8%까지 감소했던 물가, 증가세로 반전 2008년 5월 4.1%를 기록하여 2004년 10월 이후 최고치 도달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각종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도 동반
 - 원유 및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국제유가(WTI) 또한 2007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8년 6월 27일 140.22\$/bbl로 사상 최고치 경신

- 고유가로 인해 국제항공료, 김밥, 갈비탕 등의 개인 서비스 부문 상승 및 전세 및 월세 등의 집세와 도시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부문도 상승

□ 서울의 물가지수는 전국보다 1/4분기 정도 후행

-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전국 추세에 1/4분기 후 서울의 추세가 높은 상관관계(0.851)를 가지고 있어 서울이 1/4분기 정도 후행



[그림 2]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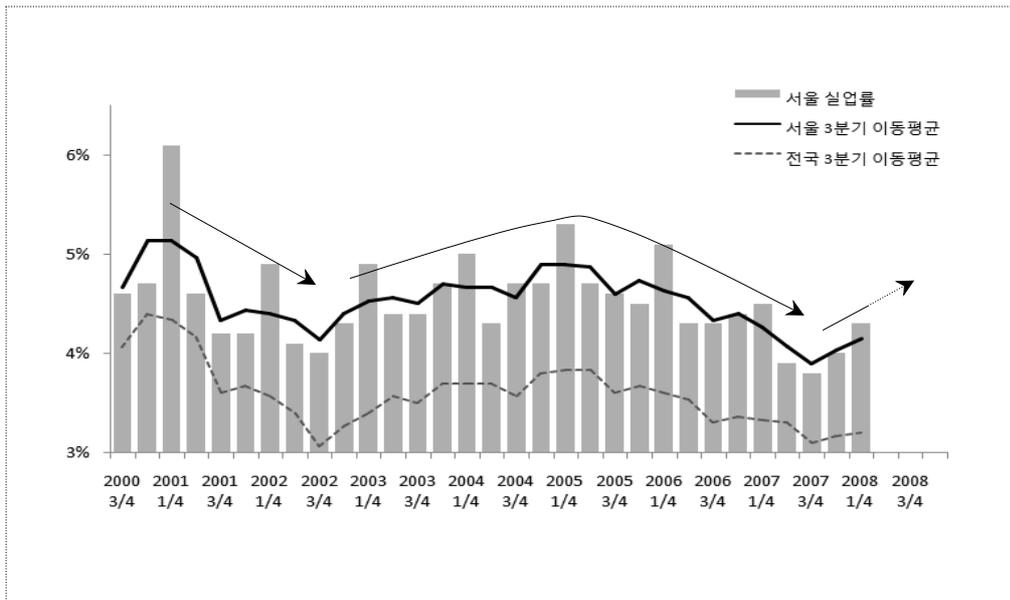
<표 4> 서울과 전국의 교차상관분석(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서울 기준)

| 시차 | 후행 | | | | 동행 | 선행 | | | |
|------|-------|-------|-------|-------|-------|-------|-------|-------|-------|
| | -1 | -3/4 | -2/4 | -1/4 | 0 | 1/4 | 2/4 | 3/4 | 1 |
| 상관계수 | 0.155 | 0.333 | 0.603 | 0.851 | 0.946 | 0.798 | 0.545 | 0.323 | 0.222 |

실업률은 국내 경제의 둔화로 상승

-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안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 3/4분기 이후 경기 하락 영향으로 소폭 상승
 - 2005년 1/4분기 5.3%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7년 2/4분기 3.8%까지 하락
 - 향후 고용여건을 반영하는 신설법인 수는 내수 부진의 업황 개선으로 2007년 2/4분기 잠시 증가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현재는 다시 감소
- 서울의 실업률 추세는 전국의 실업률 추세를 1/4분기 정도 선행
 - 서울과 전국 실업률 교차상관분석 결과 전국보다 1/4분기 앞선 서울의 추세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0.725)를 가지고 있어 서울이 1/4분기 정도 선행
 - 2004년까지 서울의 실업률 증가율은 전국보다 그 변동 폭이 작았으나 이후 전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변동추이를 보임



[그림 3]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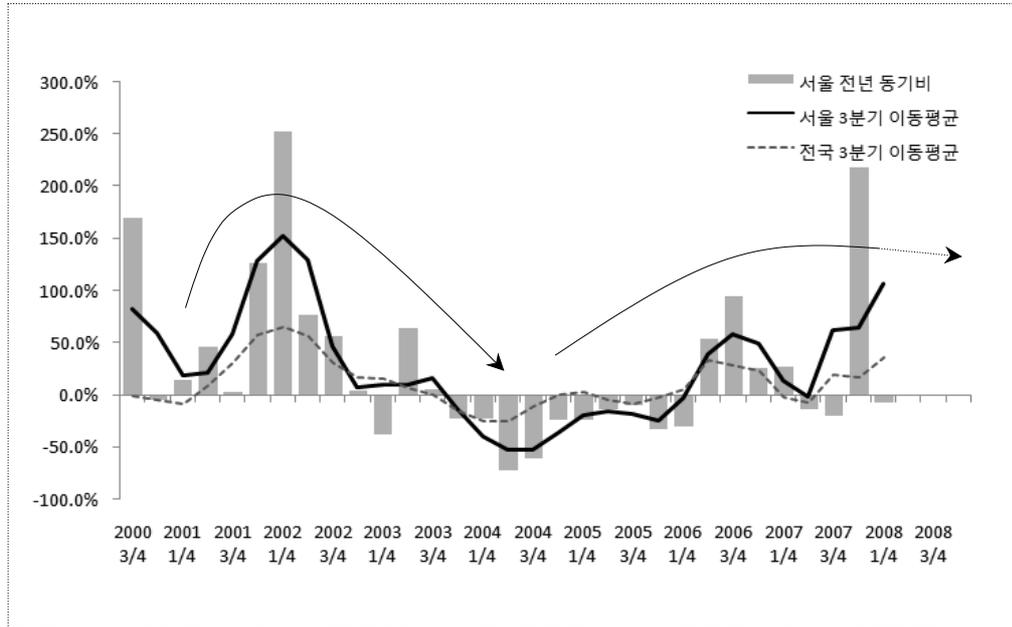
<표 5> 서울과 전국의 교차상관분석(실업률)

(서울 기준)

| 시차 | 후행 | | | | 동행 | 선행 | | | |
|------|-------|-------|-------|-------|-------|-------|-------|-------|-------|
| | -1 | -3/4 | -2/4 | -1/4 | 0 | 1/4 | 2/4 | 3/4 | 1 |
| 상관계수 | 0.039 | 0.160 | 0.424 | 0.693 | 0.913 | 0.725 | 0.491 | 0.239 | 0.134 |

주택건설 위축으로 건설투자 변동 폭은 크게 증가

- 건설투자의 지표 중 하나인 건축허가면적은 2006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상업용 건축 허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
 - 2002년 하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건축허가면적은 최저 -72%까지 감소세로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
 - 2006년 하반기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
 - 2007년 하반기 국토균형개발사업, 2기 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의 증가로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나 각종 규제 및 경기하락으로 다시 하락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추세가 전국보다 1/4분기 정도 후행
 -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전국 추세에 1/4분기 후 서울의 추세가 높은 상관관계(0.730)를 가지고 있어 서울이 1/4분기 정도 후행한다고 추정
 - 서울은 각종 건축규제와 건설투자 트렌드에 민감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변동 폭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큼.



[그림 4]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추이

<표 6> 서울과 전국의 교차상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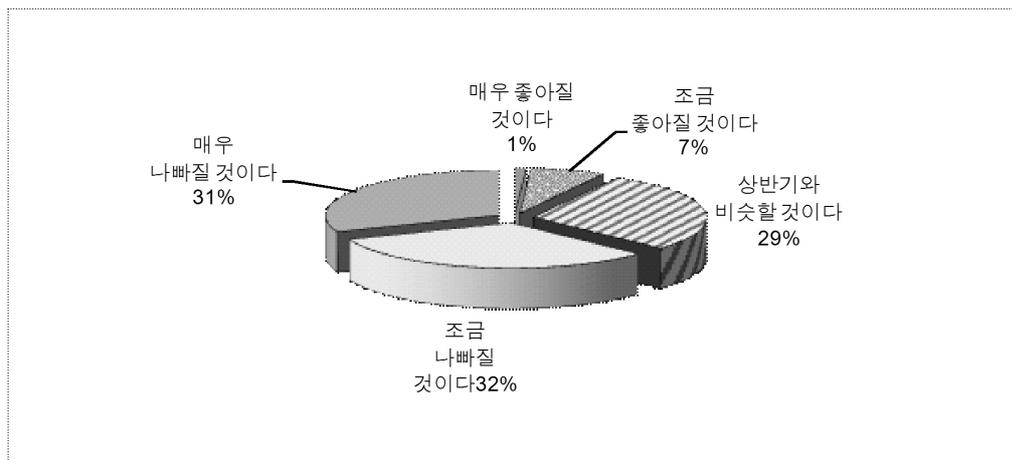
(서울 기준)

| 시차 | 후행 | | | | 동행 | 선행 | | | |
|------|--------|-------|-------|-------|-------|-------|-------|-------|-------|
| | -1 | -3/4 | -2/4 | -1/4 | | 0 | 1/4 | 2/4 | 3/4 |
| 상관계수 | -0.039 | 0.115 | 0.453 | 0.730 | 0.858 | 0.636 | 0.383 | 0.214 | 0.208 |

II.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시민 63%가 하반기 경제에 비관적

- 응답자(2,362명)의 63%가 2008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08년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빠질 것으로 예상
 -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은 상반기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32%)와 '매우 나빠질 것이다'(31%)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2008년 하반기에도 경기 악화 예상



[그림 5] 2008년도 하반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가장 비관적

- 30~40대 연령대가 하반기 체감경기에 대해 가장 비관적
 - 연령별로 20대는 '2007년과 비슷할 것이다'의 비율이 34.8% 이었으나 30대와 40대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의 비율이 각각 35.8%, 32.2%, 50대 이상은 37.2%가 조금 나빠질 것으로 예상

- 주요 소비계층인 30~40대의 경우 2008년도 하반기 소비생활에 관해 매우 나빠질 것(각각 35.8%, 32.2%)으로 예상한 반면, 20대의 경우 2008년 상반기와 비슷할 것(34.8%)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예상

<표 7> 연령별 2008년 하반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단위: 명, %)

| 구분 | 유효 응답수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조금 좋아질 것이다 | 2008년 상반기와 비슷 | 조금 나빠질 것이다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
|-----|--------|------------|------------|---------------|-------------|-------------|-------------|
| 연령별 | 20대 | 385 | 0.5 | 4.7 | 34.8 | 29.4 | 30.6 |
| | 30대 | 779 | 0.4 | 5.5 | 27.6 | 30.7 | 35.8 |
| | 40대 | 624 | 1.0 | 8.0 | 26.9 | 31.9 | 32.2 |
| | 50대 이상 | 562 | 0.5 | 8.2 | 28.5 | 37.2 | 25.6 |

주: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

저소득층의 경기체감도가 최악

□ 월평균 2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비관적

- 소득계층별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매우 나빠질 것이다(각각 36.0%, 33.8%, 33.2%), 3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 조금 나빠질 것이다(각각 35.4%, 37.6%, 36.4%)라고 예상
- 연령별 소비생활 전망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별 소비생활 전망도 전반적으로 비관적 견해가 우세

<표 8> 소득별 2008년 하반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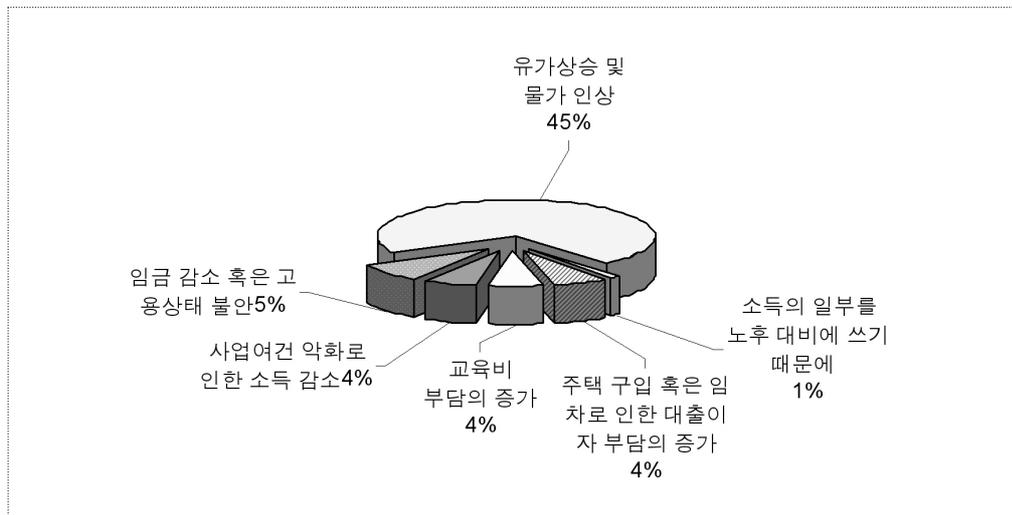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 유효 응답수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조금 좋아질 것이다 | 2008년 상반기와 비슷 | 조금 나빠질 것이다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
|---------|------------|------------|------------|---------------|------------|-------------|-------------|
| 월평균 소득별 | 100만 원 미만 | 385 | 0.3 | 6.7 | 30.8 | 26.2 | 36.0 |
| | 100~200만 원 | 589 | 0.2 | 5.4 | 27.8 | 32.8 | 33.8 |
| | 200~300만 원 | 584 | 0.9 | 5.7 | 28.3 | 32.0 | 33.2 |
| | 300~400만 원 | 373 | 1.1 | 8.0 | 26.8 | 35.4 | 28.7 |
| | 400~500만 원 | 194 | 0.0 | 9.3 | 27.3 | 37.6 | 25.8 |
| | 500만원 이상 | 184 | 1.6 | 7.6 | 32.1 | 36.4 | 22.3 |

주: 유효 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

고유가가 비관적 전망의 가장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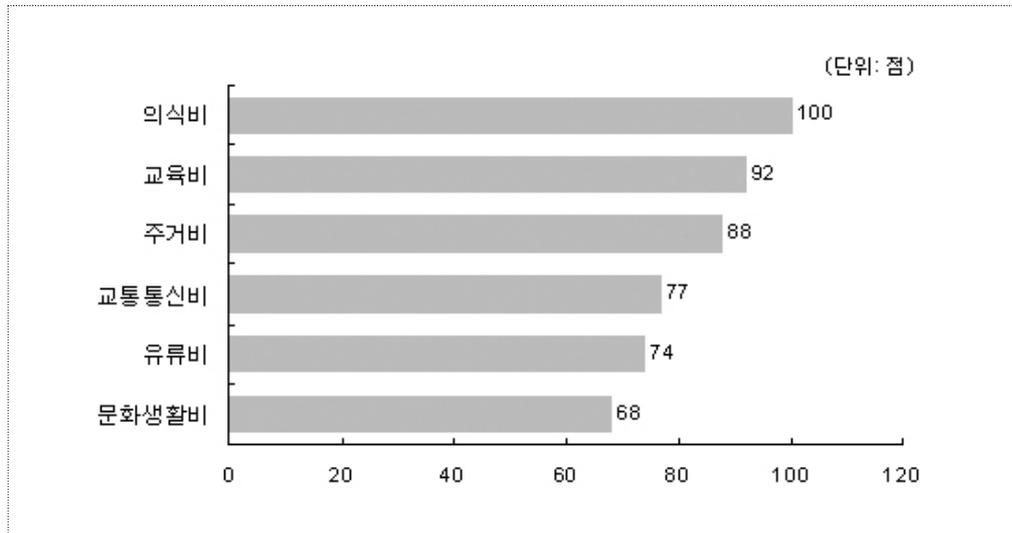
-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 45%가 유가상승 및 물가인상 때문이라고 응답
 - 그 외 임금 감소 혹은 고용상태 불안(5%), 교육비 부담의 증가(4%), 주택 구입 혹은 임차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4%)의 증가 순
 - 2008년 하반기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로 매우 저조



[그림 6] 2008년도 하반기 소비자 체감경기 악화 요인 전망

의식비와 교육비 지출 증대가 가계에 가장 큰 부담

- 2008년 하반기에 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의식비와 교육비가 각각 100점과 92점 기록
 - 이어서 주거비(88점), 교통통신비(77점), 유류비(74점)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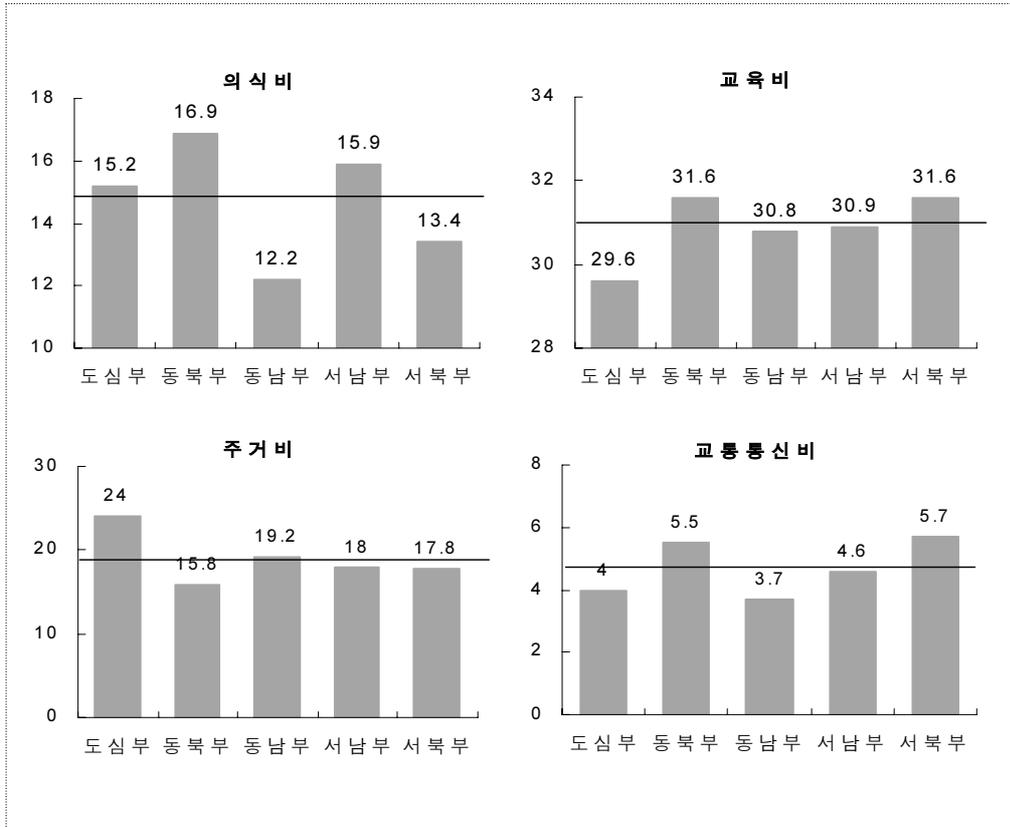


주: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 비교한 그래프

[그림 7] 2008년 하반기 소비자 지출 항목 전망

동북부는 의식비, 도심부는 주거비 부담이 최고, 동남부는 전반적 지출 부담이 최저

- 하반기 소비지출 증가 예상 항목은 권역별로 큰 차이
 - 의식비는 동북부(16.9%), 서남부(15.9%)가 평균 14.7%를 상회
 - 교육비는 동북부와 서북부가 31.6%로 조사
 - 주거비는 도심부(24.0%)가 교통통신비는 서북부(5.7%)가 지출을 늘릴 계획
 - 전반적으로 도심부는 의식비·주거비, 동북부는 의식비·교육비·교통통신비, 동남부는 주거비, 서남부는 의식비, 서북부는 교육비·교통통신비 항목 지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



주: 도심부(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부(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부(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남부(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북부(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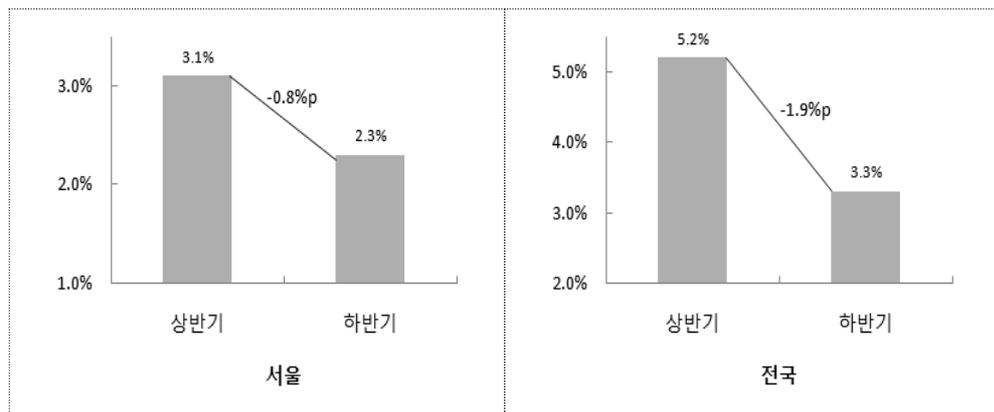
[그림 8] 서울 권역별 2008년 하반기 소비 지출 항목 전망

III. 2008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1.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2%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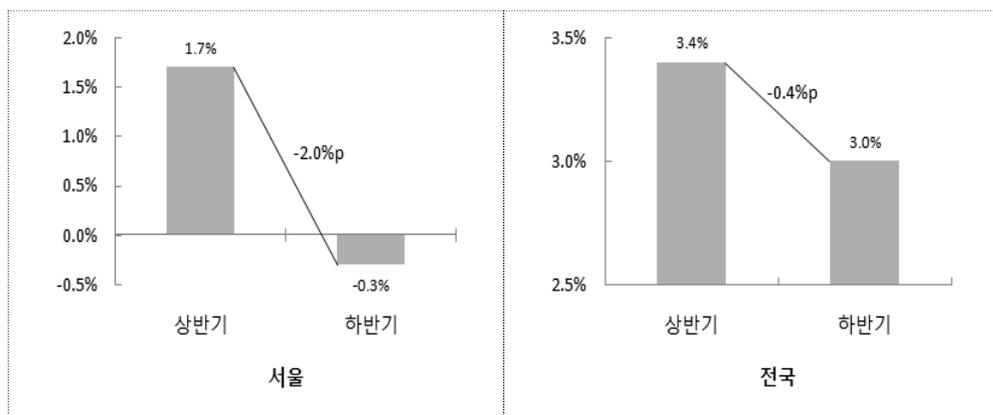
- 민간 경제연구소 등은 국내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 5.2%, 하반기 3.3%로 전망
 - 서울경제는 2008년 상반기 3.1%(잠정치)의 성장에서 하반기에는 2.3%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 추세에 의하면 서울의 성장률 추이는 2006년 4/4분기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상·하반기 전국의 성장률이 모두 서울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서울 지역의 경기 상황이 전국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주: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6.30) 참조

[그림 9] 2008년 상·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

- 가계소비는 -0.3%로 마이너스로 반전될 것으로 우려
 - 전반적으로 성장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상반기 서울의 가계 소비 지출은 1.7%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소비부문에서의 큰 폭의 하락세는 최근 유가 급등 가속화로 전반적인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기인(체감경기 부문 참조)
 - 계절적 요인과 추석·연말 특수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하반기 중에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가계소비는 -0.3%로 마이너스의 증가율 보여 본격적인 내수경기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전국의 민간 소비도 상반기 3.4%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0.4%p)로 감소, 하반기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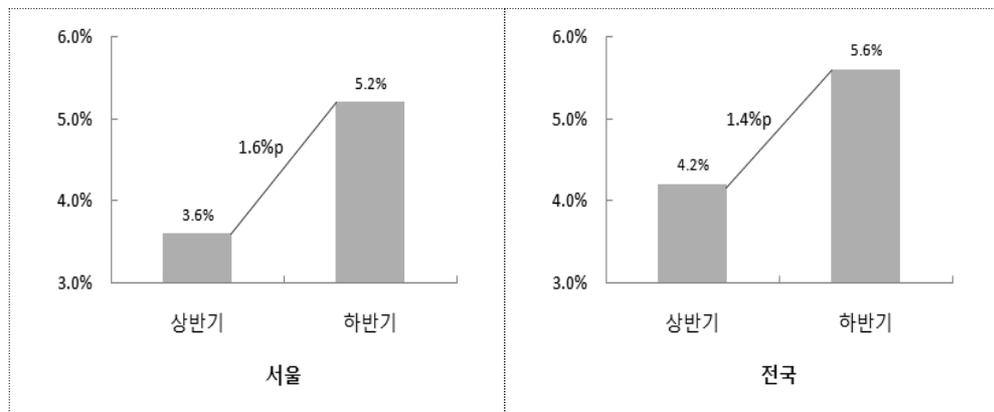
주: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6.30) 참조

[그림 10] 2008년 상·하반기 소비 전망

물가 상승 압력 지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소비자물가 증가율 5.2%로 크게 상승할 전망

- 미국 등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상반기 중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3.6%(잠정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고착화된 국제유가의 급등세 지속으로 하반기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 증대
- 반면, 전국의 물가는 상반기 4.2%에서 하반기 5.6%에 이를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등은 전망



주: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6.30) 참조

[그림 11] 2008년 상·하반기 물가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하반기 서울경제는 국가경제보다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우려

- 서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 서울시는 고유가, 환율 등 외부적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로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로 이에 대한 충격이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 내수 침체와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어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
- 하반기 서울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또한 상반기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유가 추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 시급
- 하반기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장률 감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

**계획된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조 유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대책 시급**

- 서울시는 향후 계획중인 건설공사 조기 시행 및 발주와 추경예산 편성으로 하반기 성장률 둔화 최소화
 - 현재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사업 등을 조기 시행 또는 발주하여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최소화 노력 필요
 - 고유가에 따른 물가충격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편성한 추경예산(1조 4900억 원)을 서민경제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
- 마일리지 بانک 등 인센티브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빈곤층 지원 대책 마련

-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지원으로 기존의 페널티 위주의 에너지 대책에서 탈피하여 마일리지 بانک 등과 같은 인센티브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성장률 둔화에 따라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주도할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이 시급히 요구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